



### 기획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를 보는 눈

### 활동보고

- 제11회 고양여성영화제
- 다른 삶을 상상하다! 여성이 주도하는 기후변화행동
- 남기지 않는 식탁 캠페인
- 독일 친환경정책 연수보고
- 청소년의 시민성을 깨우자

### 활동계획

2023. 12.~2024. 2. 활동계획



고양여성영화제 영화해설가·참가자들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를 보는 눈

## 평화로 성서와 세상을 읽는 힘을 회복하자

이윤희 (고양YMCA 총무)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서의 이스라엘’도 아니며, ‘정치적 시온이즘’은 유대교나 기독교와도 무관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전후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국에 의한 국제패권 질서가 재편되면서 만들어진 75년의 ‘식민지 점령과 인종차별’의 문제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문제’는 최소한 국제법과 역사적 문맥에서 다뤄져야 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문제’는 서구 기독교 중심의 세계사와 정신사에서 벗어나 세계 문명의 토대를 제공해왔던 1천년 이슬람과 동양의 정신사와 세계사를 다시금 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문제’는 역사적 문맥에 따라 현재를 보면서,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다양한 정신사와 문명사를 서구 제국이 말하는 층들이 아닌 융합,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스라엘과 기독교 시온이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

무나 익숙하고 가까운 곳이다. 그러나 Google 지도에서 팔레스타인의 지도가 사라졌듯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인식에서 팔레스타인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1948년도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실현된 성서의 이스라엘’로 믿으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 태도’로 배우고 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선민(選民)의식’으로 ‘점령과 정복,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시온이즘’과 맥을 같이하는 ‘기독교 시온이즘’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종종 광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의 배경이자, 년 6만 명 이상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감격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1948년도 이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사람들이며,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 발생하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쉬이 치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독교 시온이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한국 교회는 UN의 국제법과 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리장벽



팔레스타인 YWCA



팔레스타인 YWCA 직업훈련 작품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올리브 나무심기

권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점령과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비판조차 곧바로 ‘반유대주의’가 된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애달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슬람과 테러리즘에 대한 지지’로 낙인찍히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과 그들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편히 이야기할 수 없는 금지어가 된지 오래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찾아가기보다는 나와 다른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패권 세력으로 한국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한국 기독교의 만남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근대국가와 독립의 비전으로 한국 민들에 의해 스스로 수용되었고 성장해왔다. 한국 정신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출애굽을 읽으며 나라를 잃는 백성의 희망이 되었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의 전쟁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외된 약자의 편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전통을 형성해왔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며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약자에 의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과 함께 ‘동-서아시아의 양 끝단에 위치한 평화와 갈등의 시소’가 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약자의 연대와 협력에 의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왔다. 따라서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은 ‘약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평화’를 넓혀가는

일이자,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가는 일이며, 사랑으로 평화를 확장해가는 한국 기독교인의 소명이기도 하다.

### 평화로 성서와 세상을 읽는 힘을 회복하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사망자와 집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뉘 놓고 바라보며, 그 숫자만을 안타까이 헤아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오늘(11.26) 자로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 가자지구에서만 사망 20,031명(어린이 8,176명, 여성 4,112명), 부상자 38,750명(75%가 어린이와 여성)에 달하고 있으며, 173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278만 채의 주거가옥이 파괴되었다. 4일간의 휴전은 또 다른 내일의 가자 참상을 의미할 뿐이며, 지금 서안지역에서 불법 정착촌 유대인들과 군인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금과 봉쇄, 점령과 인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난 75년 동안 울부짖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들의 애달픈 호소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중립이라는 말로 강자의 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평화로 세상과 성서를 읽는 힘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기독교공동체가 ‘카이로스팔레스타인문서’를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점령과 정복의 시오니즘 신학’에서 벗어나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들이 땅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도록 올리브나무심기캠페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지역 민들과 함께하는 대안여행, BDS캠페인(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에 참여하자. 그리고 우선 당장은 가자지구 난민들과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자. 🙏

고양YMCA 이윤희 총무는 2008년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평화운동가이며 팔레스타인 민들이 땅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도록 올리브나무심기캠페인, 대안여행, BSD(이스라엘 보이콧운동)를 주도하고 있다.




'경아의 딸' 이충열(여성주의 현대미술가) 해설 중

## 제11회 고양여성영화제 후기 영화제는 나의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 '여성, 역사와 마주하다'

여성영화제는 지난 9월13일(수)~15일(금), 20(수) 일산CGV, 백석CGV,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4일간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디지털성폭력, 임신중절, 기후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여성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 가족, 여성의 노동 등 다양한 여성 이슈를 담은 작품이 소개됐다. 영화는 해설과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의 서사를 이야기하며 관객이 느끼는 다양한 시각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충열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조진화 중부대학교 교수, 황미요조 영화평론가, 강시현 여성주의 전문강사,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조세영 영화감독 등 다양한 해설자분들의 해설은 영화를 본 관객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더 풍성한 이야기로 영화제를 이어갔다. 영화 감독자이신 이영, 최종태, 이해란 감독은 영화의 전 과정을 나

누며 때로는 울고, 웃으며 서로를 토닥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가부장제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여성의 미래를 조망하는 이번 영화제는 고양, 파주를 넘어 광주, 세종, 수원, 과천, 서울, 오산에서 650여명이 참여해 주었다. 내년 제12회 여성영화제를 기다리며 '모든 여성의 이야기는 역사다' 



'남매의 여름밤' 관람 후

내가 만난 고양여성영화제는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다. 반가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활동가들이 내 근처에 존재한다는 것이 반가웠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예술가들이 국내에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안도가 되었다.

《콜제인》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현실기반 영화였다. 이번 영화제에서 본 9편의 영화 중 6편이 실화기반의 영화였다. 영화 바비를 바라보는 한국 관객들의 모양새와 인어공주를 보고 있는 모양새를 보자면, 실화 기반의 이야기가 지금의 한국에서 관객들에게 닿기에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다.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들여다보면서 몰입하며 본 영화였다.

《태양의 소녀》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실화로 존재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물론 각색이 많이 들어갔지만, 계속 행주대첩을 태양의 소녀들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태양의 소녀들에서 보여준 전쟁의 단면을 통해 여성의 삶이

이미 전쟁 같은 곳에서 살아왔다는 반증이 되는 듯하다.

《불온한 당신》과 《우리들은 정의파다》는 인터뷰 기반의 작업을 한 나에게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인터뷰가 가지는 매력은 단연 살아있는 말이다. 대본으로 쓰인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감독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놓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이 내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여성 인권의 주제에서 작품이 뺏어나갔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많이 갔고, 집중해서 보았다.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생각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나로 하여금 고립이 아닌 연대의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은 우리들은 정의파다를 보고 어제가 생각나서 눈물 짓지만, 언젠가 그 눈물이 생각나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고양여성영화제에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고양여성영화제 관객 '정슬기'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고양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근처 산책을 하던 중 '고양여성영화제'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성, 역사와 마주하다'라는 주제가 좋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막작인 《남매의 여름밤》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혼자 보았더라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혹은 집에서 보느라 중간중간 쉬어가게 되어 집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상영관에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상영 후 조진화 교수님의 해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을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으며, 내가 했던 생각을 해설자로부터 듣게 되니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고양여성영화제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행사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그에 대한 유익한 해설을 듣는 이 행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올해 처음, 한 회 밖에 감상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행사가 얼마나 뜻깊은 자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도 이 행사가 내년에 이어지지 못할까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앞섭니다.

꾸준히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다른 시민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여성영화제가 무탈하게 오래도록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고양여성영화제 관객 '김현비'



제11회 고양여성영화제 진행자들

# “삶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다른 삶을 상상하다! 여성이 주도하는 기후변화행동 프로그램을 마치며

고양YWCA는 지난 4/20(목)~11/16(목)까지 지역여성들과 함께 기후변화행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살면서 지금과 같은 소비지향적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성찰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전환하고 변화시킬지를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도시에서 에코페미니스트로 살면서 소비에서 자급의 삶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였고, 우리의 소비 중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지구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류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자본의 개입없이 입지않고 보관하고 있는 옷을 교환해서 입자는 21%의류교환파티를 진행하였다. 새 옷을 사지않고 서로의 옷장의 옷을 공유하는 경험은 돈의 개입이 없는 소비의 가

능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환경오염과 더불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문제를 공부하면서 의식없이 남기고 버리는 음식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 ‘남기지 않는 식탁’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음식 재료들, 냉동고에 오래도록 보관되고 있던 음식재료들을 가져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기후행동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에서 만드는 희망경제-자원순환경제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은 현 정부와 고양시의 자원순환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맡아 우리나라 쓰레기발생률이 단위 면적당 세계최고임을 확인해주며 부족한 소각장 확대와 중장기 관점에서 세계적인 경제흐름인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대표는 의류쓰레기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곽선미 우리동네닷밭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자원순환정책의 현황과 추후과제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도 기후행동단은 스터디와 기관탐방, 삶에서 소비가 아닌 자급을 높이는 행동과 실천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소비자본주의시대에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만드는 희망경제-자원순환포럼



21%의류교환파티



어쩌면 버려졌을지도 모를 재료들로 차린 식탁

“가까이서 거의 매주 만나는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녹아있는 옴은 가치관과 실천사항들을 나누며 저도 제 삶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YWCA 기후위기 모임에 한 구성원이 된 것은 제게 큰 소득이었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관한 배움과 활동은 혼자 할 수 없는데, 함께 하니 계속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후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막연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고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어떤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험하며 공동체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 남기지 않는 식탁 캠페인에 참여하며

최향숙 회원

한 해동안 지구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1/3은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버려진다. 세계인구의 11%가 기아상태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불균형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 처리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 지구온난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은 지난 10/23(월)~28(토)까지 진행되었다. 참가한 회원의 소감문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지구 한쪽에서는 기근과 아사로 시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설마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굶는 사람이 있다고?’ 반문할 정도이지만 세상은 불공평의 시대로 가고 있다. 환경재앙이 불평등으로 서서히 닥치고 있다. ‘남기지 않는 식탁’에 참여하면서 먹을거리가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식탁위에 오르기 전에 생명이었던 먹을거리 채로들, 꽃이었던, 열매였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식탁에 오른다. 그 생명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한다. 그 희생과 순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과하게 먹을거리를 소비한다. 우리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돈주고 사먹으니 너무 쉽다. 밥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 밥은 이른 봄 볍씨 씨앗을 틔워 모판에서 길러져 눈에 심겨진다.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뭄도 이겨내고 태풍도 이겨내 풍성한 어

느 가을날 추수되어 방아로 찧어 쌀이 되어 우리의 밥이 된다. 벼의 꽃을 본적도 없고 쌀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산다. 모든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맛과 자극에만 이끌려 먹을거리를 선택한다.

육류, 어류는 눈을 가진 생명으로 우리와 교감을 나누는 존재이기도 하다. 생명의 순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우리는 먹방이나 맛 집으로 생명을 대한다. 이제는 식탁에 오른 음식은 귀한 꽃이자 눈빛을 가진 생명이니 그 생명을 빌려 우리의 생을 귀하게 이어가기로 하자. 낭비없이 욕심없이 생명을 대하고 그 밥 먹고 생명의 순환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한다. 내게 온 생명을 버리거나 쉽게 여기기보다는 그 생명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함께 음식을 다 나누어 먹으면서,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양으로 우리의 식탁을 채우고 낭비 없는 삶으로 지속성 있게 실천해보기로 한다. ♡



식사 전



식사 전



식사 전



식사 후



식사 후



식사 후

# 독일 친환경정책 연수 독일의 친환경 정책에는 모두 시민이 있었다!

이경애 (고양YWCA 사무총장)

##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연수의 첫 시작은 여성 역사 그 중에서 선거권과 학습권을 중심으로 떠나는 하이델베르크에서였다. 1949년 독일 기본법 개정 시 ‘제3조 법률 앞에서의 평등 2항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넣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기를 들으며 여성 역사는 늘 투쟁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첫 일정으로 여성 역사를 배치한 것은 여성운동의 담론 속에 탈핵기후생명운동이 여성의 위치성, 주체성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YWCA가 하는 탈핵기후생명운동의 기본정신은 어떠한지 독일에서 생각을 이어간다.

## 반슈타트(Bahnstadt)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매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전기사용량이다.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경험이 있던 터라 옛 화물역사 부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세계최대규모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컸다. 패시브하우스 단지 내에 있는 학교, 유치원, 주거 건물은 모두 3중창으로 되어 있

으며 건물은 30cm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여 인공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해 여름철 열섬 현상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철저한 패시브 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진 대규모 단지는 연간 전기사용량이 1m<sup>2</sup>당 15kw라고 한다. 이곳 패시브하우스는 1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6천개의 주택과 7천여개의 직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니 이 규모에서 전력소비를 절감한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이 아닐 수 없다.

## 프라이부르크(Freiburg)

### 보봉마을(Quatier-Vauban in Freiburg)

보봉마을은 태양광발전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친환경 도시라는 찬사를 받는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주둔지였던 공간을 철거하려 했으나 대학생들과 주민참여로 도시를 계획했으며 도보자,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이 정착한 마을이다. 이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 역시 1년에 10회 미만의 자동차를 이용할 뿐이라는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2021년 고양YWCA에서는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모니터링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고양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6714톤 CO<sub>2</sub>eq) 중 수송분야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패시브 하우스 주거단지



BUND '지구의 벗' 분임투의 발표





에슬링엔 전 시장과의 간담회



에슬링엔 신청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수송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도보  
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의 필요성과 청사진으로 제시한  
모든 정책들이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었다.  
관계자는 “교통정책은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입니  
다. 주차 공간을 없애고, 주차를 힘들게 하며, 자전거와 도보  
중심의 정책이죠!”

#### 에슬링엔 시민위원회(Bürgerausschuss Esslingen)


독일 에슬링엔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로 시민  
들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조언하는 자문기구이다. 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하는 조직이 매우 인상 깊었다. 에슬링엔에서  
23년간 시장을 역임하셨던 전 시장님은 독일의 도시계획과  
개발은 시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출발점이며 끊임없이 소  
통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에슬링엔 도시의 계획과 개발의  
시간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간다고 전한다.

기후중립 미래도시를 제시한 에슬링엔에서 만난 신청사는  
건물 전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

는 건물로 우리 모두를 압도했다.

#### 징엔(Singen) 솔라콤플렉스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00년에 세워진 지역 시민기업  
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지역에서 다양한 재  
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굴,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  
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처음엔 한명으로부터, 작은  
학교 지붕 18KW 태양열로 시작하였다. 2011년에 6MW를,  
2021년에는 60MW의 전기를 생산하여 300배의 성장이 일어  
난 곳이다.

곳곳마다 보이는 독일 건물의 태양광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후 즉각적으로 2022년까지  
핵발전소 폐기를 공표하고 끝내 2023년 4월 15일 원전가동  
을 전부 중단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은 어떠한가? 우리  
의 선택과 여정이 역사로 남겨질 때 그 자리에 공존과 정의  
가 존재하기를 바라며 독일 연수를 마친다. 




주거단지 태양광 패널 설치 모습

# 열려라 청개!(청소년운동)

## ‘청소년의 시민성을 깨우자!’

김수현 (중점운동위원회 간사)

청개는 ‘청소년의 시민성을 깨우자!’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의미와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양 YWCA를 통해 직접 시민사회운동을 체험하는 활동이다. 9월~11월까지, 총6회의 만남을 통해 평화통일운동, 성평등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10명의 초등학교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8월 말 첫 모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3개월간 꾸준히 모여서 한 활동을 살펴보자. 

9월에는 ‘평화통일운동’ 체험활동으로, 박영춘 (한빛누리재단 민족화해사업팀팀장) 강사님과 함께, 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탐방하였다. 임시정부요인들이 중국땅에서 20여년을 지내며 먹었을 중국음식도 맛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자리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감사했다. 지금도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이념갈등과 문제가 여전하지만, 원래 한 뿌리와 하나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배우며, 평화의 씨앗을 다시 품는 시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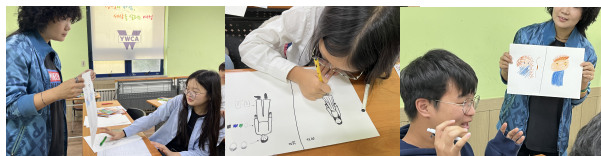


9/9(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탐방



9/9(토) ‘임시정부요인의 식탁’ 단타평 식당 방문

10월에는 ‘성평등운동’ 체험활동으로, 이충열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강사님의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강의를 듣고, 서양미술사에서 나타난 여성 혐오와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광고나 포스터에 담겨있는 성차별적 시각을 찾아내고 대안이 되는 그림으로 다시 바뀌어서 그려보는 워크샵 활동도 해보며, 자신 안에도 깨어야 할 성역할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시간이였다.



10/28(토)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워크샵 활동



10/28(토) 성평등관점으로 바꾼 포스터를 들고

11월에는 ‘탈핵기후생명운동’ 체험활동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줍깅’활동을 하였다. 단순한 쓰레기 줍기가 아닌, 자원순환의 실천으로 쓰레기를 주운 후, 올바른 분리배출까지 하였다.

\* ‘줍깅’이란?  
‘플로깅’과 같은 말로, 길거리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11/11(토) 주엽역 인근 ‘줍깅’



비.행.분.쇄.에 따른 분리배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반대 거리행진**

고양YWCA는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켜보며 9/7(목) 오후 3-4시 주엽역 주변을 반대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였다. 핵오염수를 일본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바다, 바다생물, 어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국제기구 IAEA, 한국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반대 거리행진

**고양YWCA&YMCA 친선기도주간 공동예배**

11월22일(수)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계기도주간을 맞이하여 두 기관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2023년 공동예배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민민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제를 가지고 사상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전쟁이 속히 멈추어 정의와 회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룩하신 하나님, 학대, 추방, 죽음은 2000년 전에 당신이 품소 경험한 것들입니다. 주님, 부상자들의 치유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양YWCA&YMCA 연합예배

**전국9.23기후행진**

9월23일(토) 오후1시부터 고양YWCA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13개 회원YWCA 함께 923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에 참여하였다. 약 3만명에 이르는 시민들과 함께,각자 손수 만든 손피켓을 들고, 기후정의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 다짐을 알렸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우리가 대안이다!’

‘기후위기 방관 말고 지금당장 행동하라!’

\*923기후정의행진이란?

기후재난의 시대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행진입니다.



시청 앞 기후정의행진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회원무료특강’**

10월 한 달간 총 4회(10/4, 10/10, 10/16, 10/31)에 걸쳐,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회원무료특강을 열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실천할 수 있었다.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와 ‘고체치약 만들기’ 체험은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건강도 챙기며, 수질오염 개선과 플라스틱 사용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유익한 환경특강이었다.



고체치약만들기

**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1월 15일(수) 한국YWCA연합회에서 주관한 ‘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고양YWCA도 함께 하였다. 오후12시~1시까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모여, 전쟁 중 발생하는 성범죄의 올바른 책임추구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였다. 한국YWCA연합회의 활동가들의 연대발언과 이용수 피해생존자가 특별발언으로 함께 하였고 마지막 순서로, 고양YWCA 회장과 활동가가 함께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더 나아가 국가적 분쟁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명서 낭독

**창립 34주년기념 감사예배**

지난 11/2(목) 이사, 활동가,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고양YWCA 창립34주년을 기념한 감사예배를 드렸다. 고양YWCA 부속기관시설장, 김혜경회장의 특송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여성영성연구소 ‘The 품’의 대표 김나경목사가 ‘깃발을 높이 들고, 어여쁜 자여 함께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녀의 사랑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아가서 말씀을 통해 고양YWCA가, 여성들이 어여쁜 자로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구원해나가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다. 모두가 함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의로운 길을 멈춤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립 34주년 감사예배-김나경 목사 설교

**제23회 고양YWCA나눔바자회**

지난 10월 20일(금) 지역주민들과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는 고양YWCA나눔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나눔과 사랑이 풍성한 행사였다. 특별히 올해 바자회는 기후위기 행동실천으로 일회용기와 비닐 사용을 자제하고 참가한 회원과 활동가들이 장바구니와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고 바자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사가 되었다. 행사의 수익금은 취약여성시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작은사랑 나눔에 함께해 주신 착한기업·회원**

고양시치과외사회/광천농협/노호곤/농협고양시지부/농협고양유통센터/문촌7종합사회복지관/빵굽는작은마을/보성환경/올레떡집/일산농협/장길수/지축종합사회복지관/최규식/하남YWCA/한국화훼농협/원돌종합사회복지관/고양YWCA이사·위원·회원



강선공원에서 나눔바자회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023년 품앗이의 날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1월 18일(토) 고양어울림미디어센터에서 ‘품앗이의 날’을 진행하였다. 품앗이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으로 자녀들을 함께 돌봄으로서 육아의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참여가족은 ‘품앗이 날을 통해 1년 동안의 품앗이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품앗이 간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극단씨앗의 버블쇼와 ‘엄마의 땅’애니메이션을 함께 관람하고 한 해 동안의 품앗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023 품앗이의 날 단체사진

##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 글로 소통하는 우리, “글.로.리”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에서는 9월 6일(수)부터 10월 25일(수)까지 “치유하는 글쓰기”와 “자기돌봄 사진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고양시민 여성들이 강사의 안내를 따라 글쓰기와 사진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경험을 나누었다. 참여자들이 작업한 사진 및 셀프박스 전시회와 문집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치유하는 글쓰기 작업 전시회

## 고양시 여성의 쉼터

###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자녀 동반 입소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으며 와해된 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가족 간 친밀감 향상을 위해 9월에는 밤 수확 체험을, 10월에는 곤충 박물관을 관람하고 인형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또 11월에는 패밀리 머그컵과 사진 액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행복한 일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 직장맘(대디) 주말문화 체험 및 감정노동자 가을숲 힐링 나들이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복지 사업으로 직장맘(대디) 주말 문화 체험과 감정노동자 가을숲 힐링 나들이를 진행했다. 양평외갓집체험마을에서 진행된 직장맘(대디)문화체험은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자녀들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이루어졌으며 잣향기 푸른숲 수목원에서 진행된 감정노동자 가을 나들이는 일에 지친 감정노동자들이 산림치유 및 목공작업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따뜻한 힐링시간을 가졌다.



감정노동자 가을숲 힐링 나들이

### Y가족 이야기

- |    |       |                                     |
|----|-------|-------------------------------------|
| 수상 | 9.5   | 건강가정지원센터 윤소연 제24회 고양시 사회복지유공자 고양시장상 |
|    | 9.5   | 건강가정지원센터 한희정 양성평등주간 유공자상            |
|    | 10.7  | 최향숙 위원 경기도 다독다독축제 유공자상              |
|    | 10.28 | 김경애 전 이사 고양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고양시장상       |
| 퇴사 | 9.30  | 김알음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
|    | 11.30 | 백희정 (고양시여성의 쉼터)                     |
| 입사 | 10.1  | 김다혜 사회복지사(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
|    | 11.1  | 정정은 상담담당자(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

본부

2024년 실무예배

일시 2024년 1월 2일(화) 10:00  
말씀 김나경 목사(여성영성연구소 The품 대표)  
장소 고양YWCA

제35회 고양YWCA 정기총회(사단법인 3회)

일시 2월 1일(목)  
장소 추후공지  
대상 고양YWCA회원  
내용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승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 생활영어

한 문장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실용영어 도전기

- 중급반: 수요일 09:30~11:30 (2시간)
- 초급반: 금요일 10:00~12:00 (2시간)

📖 원어민회화

원어민에게 차근차근 배우는 단계별 영어 정복

- 기초반: 화/목요일 08:00~08:50
- 초급반: 화/목요일 09:00~09:50
- 중급반: 화/목요일 10:00~10:50
- 토론반: 화/목요일 11:00~11:50

📖 고미의 굿이브닝 영어회화

입과 귀가 트이는 진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 회화(Speaking): 월요일 19:00~21:00(2시간)
- 듣기훈련(Listening): 수요일 21:30~22:00(30분) ZOOM 진행

기독교여성주의 스터디 '그궁'

'나는 성경 속 그녀들이 궁금하다!'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성경 속 소외된 여성들을 찾아보는 시간

일시 2024년 1월 10일(수) 10시  
내용 난민 여성 예언자 '홀다'  
장소 고양YWCA

일시 2024년 2월 7일(수) 10시  
내용 영생을 주는 소녀  
장소 고양YWCA

독서토론모임 '작당'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책들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도서 《밝은 밤》  
장소 고양YWCA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도서 《언니들의 퐁박 기도》  
장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2023 활동가 송년 워크숍

일시 2023년 12월 7일(월) 16:00  
장소 고양YWCA 샬롬방  
대상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활동가  
내용 2023년 상담소 활동 나눔 및 레크리에이션 등

고양시 여성의 쉼터

성인 입소자 정서 프로그램: 화장품 만들기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12(화)일  
대상 쉼터 성인 입소자  
내용 입소자 정서치유를 위한 공예 활동 진행

성탄파티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대상 쉼터 입소자 및 실무자 전원  
내용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지난 1년 돌아보기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4년 모두가족봉사단 신규가족 모집 및 발대식

일시 2024년 2월 중 (토) 10:00~12:00  
장소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모두가족봉사단 가족  
내용 모두가족봉사단 신규가족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발대식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여성노동자 커뮤니티활동 결과보고회

일시 2023.12.15(금) 19:00~20:00  
장소 한양문고 '갤러리카페 한'  
내용 2023년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커뮤니티 활동결과 보고회 및 센터 사업보고회

# 생명사랑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8. 1.~2023. 10. 31.)

- 고양YWCA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 ‘아띠’ 웹레터는 매월 회원님에게 보내는 YWCA 친한 친구의 편지입니다.  
웹레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회원님의 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 CMS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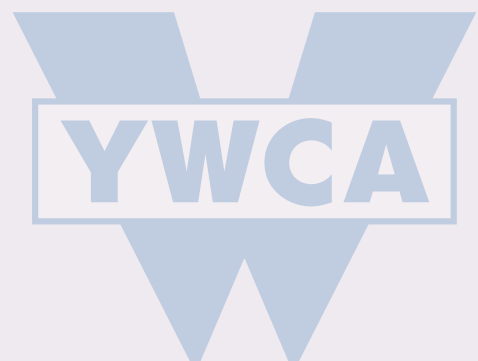
강금화 강수연 강수영 강영선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고경남 고경춘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정숙 고현준 곽경자 곽승현 곽창훈 구인순 권경숙 권기웅 권여정 권영희 권현영 김갑훈 김 경 김경숙 김경식 김경희 김경희 김광명 김규자 김근희 김나연 김대원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화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학 김보현 김복순 김상범 김상은 김석우 김선미 김성남 김성숙 김성애 김성연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세은 김세환 김소연 김수빈 김수정 김수현 김순희 김시화 김신실 김알음 김애경 김애경 김영빈 김영수 김영순 김영환 김영훈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우란 김원순 김유영 김윤지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인애 김인애 김인영 김재원 김정숙 김정연 김정윤 김정효 김정희 김종애 김종일 김주아 김주영 김주현 김종렬 김지선 김지영 김진아 김진호 김춘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산 김태은 김태현 김필레 김해련 김행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순 김형재 김형진 김형채 김혜경 김혜정 김혜순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호석 김홍희 김효정 김훈혜 김홍희 김홍주 나종하 남궁성 남궁신 남궁혜경 남윤숙 노미화 노진 마진아 모지영 문복희 문정은 문채은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민혜진 박경선 박귀영 박금연 박기복 박명철 박민희 박병준 박상근 박상현 박서정 박서경 박선주 박성욱 박성호 박성희 박세연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양숙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희 박인숙 박점례 박정수 박종임 박주경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찬 박진현 박채란 박해동 박희경 반정인 반준우 방지연 배강현 배민희 배서현 백수정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서강기업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서옥경 서정미 석영근 성경자 성화스님 소경희 손미나 손희경 송경애 송경화 송미숙 송재울 송주용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선우 신영란 신우섭 신인선 신재희 신정현 심수연 심재현 심형창 심홍순 안길준 안인숙 안재홍 안지영 안지원 안지원 안춘미 양상국 양승례 양애숙 엄태용 연영진 오다혜 오선아 오연주 오지혜 오진영 오향숙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우지민 원용열 원유정 원정환 유계순 유보라 유애희 유윤석 유진숙 유호심 유효준 윤문식 윤보현 윤선주 윤소연 윤영근 윤정애 윤준구 윤지영 윤희도 이강욱 이경애 이경혜 이대성 이동호 이두환 이명순 이명옥 이명윤 이명화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백혜 이병호 이봉은 이상희 이서연 이선민 이선순 이선아 이수정 이수진 이승미 이신애 이신옥 이영남 이영원 이영희 이용주 이우진 이원희 이윤영 이윤승 이은경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필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기 이재영 이재정 이정민 이정선 이종례 이주기 이주영 이준서 이지연 이지옥 이지은 이진아 이진희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태형 이해숙 이현령 이혜경 이혜영 이흥근 이환진 이효정 이희재 임상원 임수현 임수희 임숙영 임용서 임은선 임은정 임재경 임지현 장길주 장상화 장선심 장승철 장영옥 장영진 장인남 장정옥 장철영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기철 전민자 전선윤 전성원 전성혜 전수경 전은국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혜림 전혜숙 정구수 정만진 정미선 정미영 정미영 정민경 정병택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아 정여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용환 정원재 정은선 정인석 정정희 정판오 정 현 정현아 정형심 정혜옥 정혜정 정희백 정희진 조경오 조성주 조애진 조영근 조은경 조 정 조지혜 조하영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현의 조희정 주수연 지순정 지에이(주) 신상기 진의연 진태을 차태수 차 한 최경숙 최귀영 최난경 최미선 최미정 최선영 최성원 최숙정 최영미 최옥명 최유진 최은주 최정숙 최종순 최준수 최준식 최지현 최진옥 최해욱 최해월 최향숙 풍영이(주)서도서관 하연화 한경신 한금식 한대현 한명규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시우 한정수 함윤희 허공균 허혜정 홍기표 홍성진 홍윤주 홍정민 홍정임 황소영 황영은 황은영 황태성 황혜숙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황화선

## 평생회원

우정희

## 일반후원금

고양YWCA이사회 김알음 나들목교회 송경애 송주용 순복음원당교회 승리교회 한두레자치회



<b>후원 참여방법</b>	<b>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b>
CMS회원 : 월 만원 이상    평생회원 : 100만원	•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쓰입니다.
일반회원 : 연 3만원    특별회원 : 10만원 이상	• 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쓰입니다.
어린이회원 : 연 5천원    Y틴회원 : 연 5천원	• 젠더관점으로 보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모니터링활동과 정책제안에 쓰입니다.
물품후원 : 후원해 주시면 작은 물품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 청소년리더십개발 '주말대안학교 키다리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쓰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319-8488-91 (예금주: 고양YWCA)	회원가입 문의 031-919-4040



# 제35회 고양YWCA 정기총회

사단법인 고양YWCA정관 제5장 제21조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2월 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추후 공지

## 문의

031-919-4040

## 안건

2023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